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HRDKorea



# 10

2020  
OCTOBER  
vol. 292

발행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김은희  
글 김민정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http://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작해 DREAM

04—05

HRD 오피니언

살아 숨 쉬는 일학습병행법을 기대하며

06—07

NOW HRD

제14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현장

08—09

HRD 사용법

다시 보는 3년간의 기록

전국기능경기대회 어떻게 걸어왔나?

10—11

HRD 현장사용법

2020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

## 함께해 DREAM

12—13

HRD Focus

언택트 시대가 가져올

스마트 직무 훈련 시대

14—17

미래로(路) 인생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피부미용 직종 김수아 선수

18—21

기술로(路) 인생

박영철 우수숙련기술자

(보석 및 금속공예 분야)

22—23

채용의 정석

공기업 최초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한국수자원공사

24—25

생생 꿈지도

구르는 들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 약속해 DREAM

26—27

신박한 자격

사람을 다루는 상담에 관한 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 vs 직업상담사

28—31

똑똑 여행

도심 속 천혜 자연,

울산 동구로 떠나는 여행

32—33

취업에 직방

예술인의 고용을 보장하라!

## HRD DREAM

34—37

돌아온 팀플전

전문자격운영부

팀복권 만들기 도전

38—39

인싸 책방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40—41

당신의 청렴지수

청렴의 원 플러스 원

42—43

HRD 뉴스

44

독자후기

## HRD는 가르침과 성취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는 기술의 장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함께 뛰는 이들.

흔들리지 않는 가르침을 준 스승과 끝끝내 시간과의 진득한 승부를 이겨낸 제자,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웅입니다.

너는  
나의  
영웅



(왼쪽부터) 김수아 선수, 김숙희 지도교사

“대한민국 뷰티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기술과 학문이 융합된 숙련기술을 배우는 보람은 무엇보다 큽니다.  
가르침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스승님과 함께 그 발전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인터뷰 中 한 마디

# 살아 숨 쉬는

## 일학습 병행법을 기대하며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어린 여공들의 일터 환경과 근로여건은 열악했다. 평균 연령이 15살에 불과한 여공들은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하며 한 달에 고작 2번 밖에 못 쉬는 것이 현실이었다. 근로기준법은 있었으나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당시 재단사로 일했던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1일 근무시간 12시간 이내, 매주 일요일 휴일, 건강진단 실시, 수당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요구였으나 끝끝내 책임 있는 기관에 닿지 못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다.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에 저항했다. 그의 희생은 근로기준 법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 쉬는 법이 되도록 하는 촉발제가 됐다. 법이 온전히 작동해야 힘을 일깨워주는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이다.

지난해 제정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8일 시행됐다. ‘일학습병행’은 독일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한 현장기반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제도로,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다. 2014년 도입 이래 9만8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고, 참여기업도 1만6천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습근로자 안전보호 미흡, 일학습병행 자격의 국가자격 미인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지난해 마련됐고, 시행을 앞둔 1년간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야간·휴일 현장훈련도 제한해 학습근로자 보호에 힘을 실었다. 학습근로자가 소정의 과정 이수 뒤 내·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참여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 기업 주도로 현장훈련이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운영을 위한 근거 법은 그 시행에 발맞춰 더욱 단단해졌다. 기업과 학습근로자 간 책임과 권리·보호 내용이 뚜렷해졌고,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에 대한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다. 이제 일학습병행이 우리 곁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 기업, 훈련기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실천만이 남았다. 공단도 일학습병행법 연착륙을 위해 최일선에서 학습근로자 안전보호,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 위상 제고에 힘쓸 것이다. 법 시행으로 일학습병행이 산업현장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중소기업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만

NOW HRD

시작해 DREAM

글 · 사진 능력개발기획부

## 뉴 노멀시대,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비대면(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제14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현장



공단이 지난 9월 10일과 11일,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하나로

제14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했다.

‘변화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행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현장 참관 없이 전면 비대면(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과 조직 운영 방안 등

올해도 다채로운 강연으로 꾸려진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현장을 전한다.



국내 최대 HRD 컨퍼런스로서 어느덧 14주년을 맞은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올해 ‘뉴 노멀시대, 사람 중심 인적자원개발’을 주제로 3개의 기조강연과 26개의 이슈별 동시강연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국내·외 HRD 최신동향, 선진 기법,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 인식 확산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외 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및 관련 분야 학생과 일반인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자리다.

올해 기조강연으로는 토니 빙엄(Tony Bingham) 미국 ATD(인재개발협회) 회장과 이찬 서울대학교 교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활약했다.

첫날인 10일, 토니 빙엄 회장의 기조강연은 한국·미국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적자원개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세계적 동향에 관하여 토니 빙엄 회장과 이찬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담을 이어갔다. 11일에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뇌 과학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밖에도 5개의 이슈별(HRD, 최신트렌드, 기업우수사례, N-HRD와 공공, 통합적HR) 동시 강연으로

비대면(언택트) 기술의 보편화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응하는 민간의 우수사례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특히 K-Digital Training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류근관 교수와 신기술훈련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앤리스 김재원 대표, 멋쟁이 사자처럼 이두희 대표가 토론을 진행하여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18만 명 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실현 방안을 고민했다.

올해 컨퍼런스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그 열기는 뜨거웠다. 이틀간 4,750명의 참관자가 온라인 생중계로 참관했다. 주최 측은 ‘심플로우’라는 플랫폼을 통해 컨퍼런스를 송출함으로써,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퀴즈를 주고받고, 질의응답하는 기능을 가능하도록 해 현장감을 극대화했다. 이에 강연자들은 언택트 시대의 교육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견하며, 코로나가 미래를 일부 앞당긴 부분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로운 위기와 환경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찾은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의 HRDer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되었다. 강연자, 참관자 그리고 주최 측이 모두 한마음으로 컨퍼런스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새 시대의 변화된 가치를 실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첫발을 뗀 제14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박수를 보내며, 더 진일보한 모습의 내년 제15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를 기대해 본다.

## 다시 보는 3년간의 기록 전국기능경기대회 어떻게 걸어왔나?

기능경기는 공단 숙련기술진흥 사업(숙련기술진흥, 숙련기술전수, 기능경기)의 하나다.

공단은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국제기능올림픽 참가를 통해 숙련기술인

사기 진작과 숙련기술 우대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매년 17개 시·도별 개최지를 달리 순환하여 개최하며, 약 2천여 명의 숙련기술인이

상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숙련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 경기직종 수

**2017**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2018**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2019**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정식 직종

폴리메카닉스 등 49개 직종

#### 시범 직종

산업용로봇 1개 직종

#### 정식 직종

폴리메카닉스, 산업용로봇 등  
50개 직종

#### 정식 직종

폴리메카닉스, 산업용로봇 등  
50개 직종

### 입상자 및 수상자 (단위: 개)



	2017	2018	2019
금(1위)	54	53	53
은(2위)	100	97	95
동(3위)	139	134	140
우수상	131	126	128
장려상	398	388	389
총계	822	798	805

## 참가선수

### 성별



매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참가율이 3배 이상 높다.

**2017**

총 **1,901**명

남  
**78.4%**  
(1,491명)

여  
**21.6%**  
(410명)

**2018**

총 **1,845**명

남  
**77.6%**  
(1,432명)

여  
**22.4%**  
(413명)

**2019**

총 **1,8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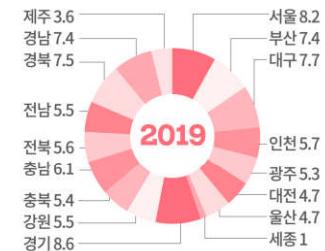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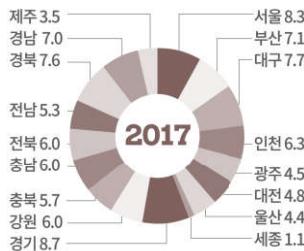
남  
**79.6%**  
(1,470명)

여  
**20.4%**  
(377명)

### 시·도별

(단위: %)

매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참가율이 8% 내외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시의 참가율이 각각 4% 내외와 1%로 낮다.



### 소속유형별

(단위: 명)

매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소속유형별 분포를 보면 교육기관 중 전문계 고등학교 소속 참가선수가 가장 많고, 중학교 및 대학원 소속 참가선수가 가장 적다.



#### 교육기관

#### 훈련기관

#### 기업체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전문대	폴리텍 대학	대학교	대학원	법무 직훈	기타 훈련 기관	학원	기업체	일반 업소	개인	계
<b>2017</b>	1	28	1,466	18	4	26	1	29	39	44	73	47	125	1,901
<b>2018</b>	1	50	1,051	26	14	37	2	39	73	119	181	173	79	1,845
<b>2019</b>	2	16	1,406	16	3	12	2	35	35	32	90	57	141	1,847

#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술력으로!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0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4일 온라인 개회식에 이어 21일 온라인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더욱더 뜻깊었던 시간, 짧지만 알찼던 이번 대회의 성과를 돌아본다.

##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치러진

### 최초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국내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북에서 16년 만에 개최됐다. 17개 시·도, 50개 직종 1,778명의 예비 숙련기술인들이 기술 역량을 겨루기 위해 모인 자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 속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됐다.

개회식은 모두 ‘온라인 중계’로 전환하여 진행됐다. 시·도별 선수 소개와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말 등은 사전에 제작하여 송출되고, 선수 및 집행위원 등 대회 관계자 모두 방송을 통해 개회식을 지켜보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본 경기에서 선수들은 전자출입명부(QR) 인식, 체온 측정, 안전 팔찌 및 마스크 착용에 이어 ‘투명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실력을 겨루었다. 엄격해진 방역 수칙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기량을 발휘해 주었다. 이번 대회는 폐회식 또한 21일 10시에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종목별 시상식은 폐막 이후 현지 시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러진

### 예비 숙련기술인 간 열띤 승부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은 경상북도가 차지했다. 금메달 9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0개를 거머쥐었다. 준우승은 서울특별시가, 3위는 경기도가 차지했다. 대회 최고 득점 선수에게 주는 대통령상은 피부미용 직종에 서울특별시 대표로 출전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김수아 선수(19세)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의상디자인 직종에 울산 대표로 출전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장명주 선수(35세)가 차지했다.

한편, 다수 입상자를 배출한 기관에 주는 금탑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대회 은탑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경상북도)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광주광역시)가, 동탑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부산광역시),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경상남도), 여수공업고등학교(전라남도)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직전까지도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치러졌다. 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금 이른 시기에 문을 닫았지만, 예비 숙련기술인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평가다. 대회장을 맡은 김동만 이사장은 “대회가 어렵게 개최된 만큼 더욱더 철저한 방역 속에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며 “젊은 기능인들이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결과는

‘마이스터넷(meister.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은 2021년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 언택트 시대가 가져올

## 스마트 직무 훈련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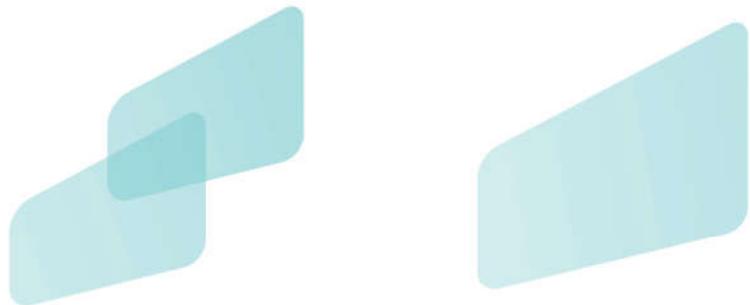
이상현

SiTULATE 대표

Ph.D. Human Resource Development



팬더믹 상황이 갑작스레 가져온 일명 언택트 시대는 직무 훈련의 스마트화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팬더믹 상황이 불러온 세계적인 변화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직무 훈련 분야에 있어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시대에 대비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전 세계적인 변화는 인류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단 시간에 바꾸어 놓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극히 제한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일명 언택트(영어권에서는 주로 Contactless로 표기함) 시대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잘 대비한 기업이나 개인들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웹 컨퍼런싱 툴인 줌(ZOOM)은 지난 5~7월 사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한 6억 6,350만 달러(약 7,900억 원)를 기록했으며 기업 고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BC 뉴스 코리아). 온라인 교육에 준



비가 미흡했던 대학 교육은 수강자가 급감하고 환불 요구 사태까지 나타났지만, 온라인 콘텐츠가 잘 준비되어 있던 클래스팅이나 클래스 101 등의 가입자는 급증했다.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언택트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 관리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실사용 솔루션이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HRD의 큰 분야를 차지하는 직무 훈련 등에 있어서 여전히 직접적인 만남을 수반한 훈련을 유지하거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플랫폼을 활용한 기본적인 온라인 훈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 공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훈련에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또다시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언택트 시대로 인해 어려워진 직무 훈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훈련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직무 훈련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당연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훈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화면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A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화면에 훈련 정보가 표시되고 트레이너의 피드백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며 훈련 과정 개발과 관리도 손쉬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마트한 차세대 직무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사업으로 제조 설비 등의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스마트한 직무 훈련이야 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팬데믹 상황이지만 백신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언택트 시대가 앞당긴 디지털화 스마트화 시대는 지속될 것이다. 스마트 직무 훈련 시스템 개발이야말로 인적자원개발 분야가 언택트 시대 그리고 그 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기대해 본다.

미래로(路) 인생

함께해 DREAM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 미래로 인생

# 未來路

아닐  
미

오다  
래

길로



# 예술과 기술, 쌍끌이에 성공하다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통령상 수상(피부미용 직종)**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K-뷰티 산업융합학  
김숙희 교수(지도교사), 김수아 선수**



K-팝과 함께 K-뷰티라는 말이  
더없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시대,  
김숙희 교수와 김수아 선수가 합작으로  
이루어낸 성과는 대통령상 수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숙련기술 위에  
예술까지 얹어 만들어낸 이 결과는  
K-뷰티의 미래를 담보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열정과 근성으로 이룬 성과

20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 50개 직종에 참가한 1,778명의 참가선수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피부미용 직종에 참가한 선수들은 32명. 그중 기권자를 제외하고 총 28명의 선수가 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전 오후로 나뉘어 출전하면서 더욱이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김수아 선수(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K-뷰티산업융합학전공)는 묘하게도 안정적인 분위기다. 연습할 때는 스승인 김숙희 교수의 손에 들린 타이머만 봐도 가슴이 두근반세근반 했지만 정작 실전에 들어가서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경기 첫날 ‘스파전신 기기관리’ 종목은 그렇게 시작됐다.

“기능경기대회에 나가겠다는 생각은 3년 전부터 했어요. 하지만 작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는 연습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예상보다 성적이 낮았어요. 올해는 더 단단히 각오했고 김숙희 교수님을 지도교사로 모시면서 본격적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방경기를 거친 인재들이 모이는 전국대회답게 그 준비는 만만치 않았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공부와 훈련을 계속했다. 네일, 전신관리, 얼굴관리, 약싱,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종목이 많았고 특히 한 달 전에 공개되는 과목별 후보과제 4개는 전부 다 손에 붙은 듯 완벽하게 숙지해야 했다. 그중 하나가 대회 당일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방경기 때는 없었던 종목이 추가되면서 급하게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기술도 있었다.

김숙희 교수는 김수아 선수에게 맞는 훈련계획서를 작성했고 속도 조절을 위해 처음부터 타이머를 맞춰놓고 가르쳤다. 한 달 전에는 배점과 채점표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훈련은 필수였다. 김 교수는 그간 국내외 각종 미용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를 가르치면서 그랑프리상, 교육부장관상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능인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는 처음이라 김 교수 역시 막판에는 같이 합숙까지 하면서 공을 들였다.

“처음 수아가 기능경기대회에 나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선뜻 지도교사를 맡았던 이유는 평소 수업태도도 워낙 좋았고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에요. 3명 정도가 같이 대회를 준비했는데 2명이 중도하차를 했을 때도 수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열정과 근성이 나왔을까 하는 김 교수의 칭찬에 김수아 선수는 수줍은 미소를 짓는다.

### **취향을 꿈으로, 기술을 예술로**

김수아 선수가 보기 좋고 ‘예쁜 것’에 관심을 가진 건 초등학교 시절부터였다. 보통의 여학생들이 가질 법한 관심을 넘어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취미 삼아 네일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고 주변 이들의 손톱을 이쁘게 꾸미는 데 열심이었다. 부모님은 딸이 좋아하는 분야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꿈을 향해 좀 더 빠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일찌감치 목표를 설정했기에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고 싶은 이유 또한 명확했다.

“처음엔 네일로 시작했지만, 더욱더 다양한 종목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기능인’이라는 이력이 제가 훗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때 단단한 발판



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에 덧댄 자격의 힘을 알아차린 이였다. 한편, 김숙희 교수가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리듬’이다. “마사지에 리듬이요?” 일반인들이라면 당연히 가질 의문이지만 김 교수는 단호하다. 뷰티테라피에서 강약조절, 속도, 호흡…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리듬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리듬 안에서 모든 행위를 인체공학적으로 수행할 때 우러나오는 ‘멋’과 ‘아름다움’은 기술을 뛰어넘는다’. 그것이야말로 뷰티테라피가 지향하는 바라는 김 교수. 스승은 매 순간 ‘리듬’을 살려 과제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고, 제자는 자신과 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 리듬을 살려 종목별 과제를 빙틈없이 수행해냈기에 금메달 수상자 중에서도 최고점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 **숙련기술인 배출로 K-뷰티의 미래를 담보한다**

K-뷰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단어가 됐지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와 지도교사인 이들에게는 조금 더 책임감으로 다



가온다. 김 교수는 더 큰 글로벌시장으로 그 세를 단단히 확장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미래를 이끌어나갈 숙련기술인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는 사명을 끌어안게 됐다.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K-뷰티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이런 대회가 교두보가 되기 때문이지요. 대회가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기술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용숙련기술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키우면 부수적으로 장비회사, 화장품회사 등 관련 산업들이 함께 커집니다. 기능대회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교수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다. 학생들이 기능대회에 주력해서 실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도 시작할 엄두를 못 내거나 중도포기자가 많다는 것이다.

“모델을 구하는 것부터 연습 때 사용하는 미용제품, 소모품 모두가 개인 부담이에요. 누군가의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도전이죠. 국가 차원에서 미용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제자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았다. 다가오는 10월 말에 올해 1등과 2등, 작년 1등과 2등이 한 자리에 모여 2021년 제46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목표는 하나다. 국제대회에서 각 나라 대표와 정정당당히 겨뤄보고 싶다는 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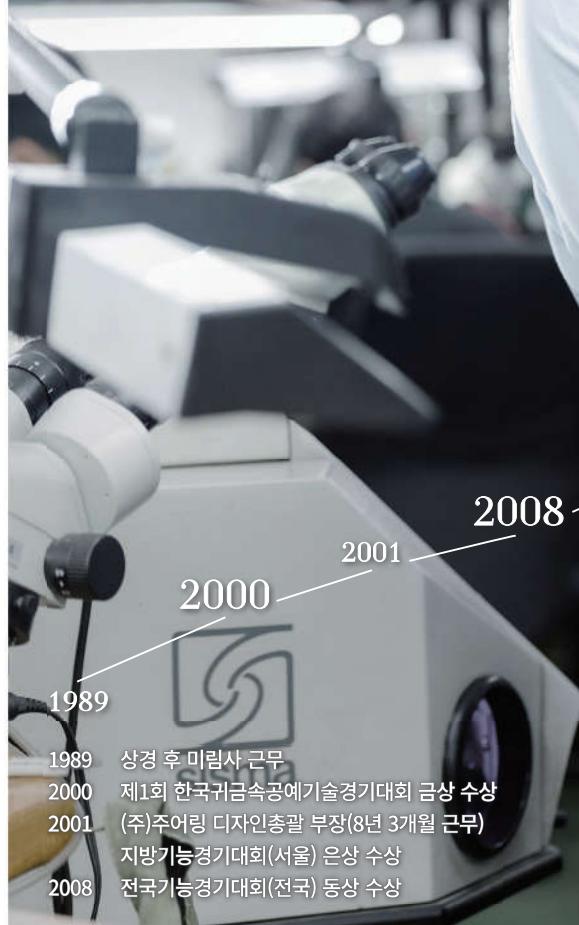
“교수님께서는 부족한 점이 보여도 차근차근 실력을 늘려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끊임없는 지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향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뷰티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는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이들. 기술과 학문이 융합된 숙련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보람은 그 무엇보다 클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뜰뜰 뭉친 이들 앞에 K-뷰티의 밝은 미래가 덧입혀진다.

# 기술로 인생

# 技術路

재주  
기  
재주  
술  
길로



- 1989 상경 후 미림사 근무  
2000 제1회 한국귀금속공예기술경기대회 금상 수상  
2001 (주)주어링 디자인총괄 부장(8년 3개월 근무)  
지방기능경기대회(서울) 은상 수상  
2008 전국기능경기대회(전국) 동상 수상

- 2009 렉스다이아몬드 디자인총괄 부장(5년 3개월 근무)  
2011 한국산업인력공단 귀금속가공기능장 자격증 취득  
2016 귀금속공예 직종 국제기능올림픽 지도위원 선정  
2019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보석 및 금속공예 분야) 선정  
와이스미스→(주)와이스미스로 법인 전환



# 생애 가장 잊지 못할

## 순간을 빛어내는 손끝

(주)와이스미스 박영철 대표



**반짝이는 보석은 부의 상징이지만 때로는  
그 상징성을 넘는 가치를 발휘한다.**  
**보석 및 금속공예 분야에서**  
**2019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박영철 대표는 자신의 직업에**  
**보석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부여해 온 인물이다.**  
**거친 손끝으로 가장 아름다운 찰나를 빛는**  
**그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더없이 유의미하게 흘러간다.**

### 눈물로 배운 세공기술

소년은 일찍 철이 들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소년을 일찌감치 어른으로 만들었다. 고교 진학조차도 부모님께는 짐이 되리라 생각한 소년은 고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때마침 집에 찾아온 친척 형이 보석세공 일을 한다는 소리에 자신도 반드시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원가를 똑딱똑딱 만드는 일에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던 소년은 그렇게 상경했고 남대문에 위치한 세공업체의 막내로 일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기는 쉽지 않았다. 작업장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잤고 새벽 5시 30분에는 일어나 청소를 한 뒤 망치와 모루를 갈아 선배들이 편히 작업을 하도록 준비를 끝냈다. 청소부터 잡일, 심부름까지 잠시도 궁동이 불일 시간이 없었지만, 그는 부지런히 선배들의 어깨 너머로 세공을 배웠고 주말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했다.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온 시간이 10년이 됐을 무렵,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남다른 손재주와 성실함을 눈여겨보던 선배가 ‘제1회 한국귀금속공예기술 경기대회’에 출전할 것을 권했다. 그때 나이 스물일곱, 최연소로 출전한 박 대표는 금상(1위)을 차지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벅찬 설렘과 뿌듯함을 안은 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몇 번의 강산이 변하고 박영철 대표가 보석세공을 시작한 지 어느덧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국 디자인흥원 우수산업디자인’, ‘국제귀금속장신구 대전’,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굵직한 대회에서 상을 휩쓸 그는 업계에서 무한한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지난해, 마침내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길고 험난했던 그의 여정에 주어진 영광의 티아라였다.



### 전통기술과 첨단 시스템 사이의 절묘한 균형 잡기

“제가 보석세공을 배우던 시절과 지금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제가 일을 배우던 시기만 해도 세공사는 디자인부터 광택 내기까지 모든 공정을 전통방식으로 다 해내야 했어요. 지금은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자기가 담당한 일을 잘 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박 대표가 5년 전 창업한 (주)와이스미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다.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세공과 4차산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귀금속 세공 공정 시스템과 기술연구개발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귀금속 세공의 특성상 전 과정의 스마트팩토리는 불가능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설비를 선도적으로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와이스미스는 CAD를 이용해 디자인하고 3D 프

린트를 사서 공정 일부분을 스마트화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유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해외시장에 새로운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세공기술을 분석하고 누구든 도전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임직원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준다.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로서 효율성 높은 방식의 대량생산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에게는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작품 또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독창성 있는 디자인과 세공 이야기로 대한민국 디자인의 초석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절묘한 균형 잡기를 통해 박영철 대표가 제작하는 핸드메이드 주얼리 제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스코리아대회부터 슈퍼모델대회, 각종 행사, 웨딩업체에 티아라들을 만들어 공급해오며 티아라 분야에서 더욱이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의 사무실

## 우수 숙련기술자가 되기 위한 조건



### 철저한 자기 관리

귀금속 세공 분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한다.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다잡고 정진해야 한다.



뒤쪽에 장식된 티아라들은 보석을 찾아온 방문객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남을 순간을 선물하다

“처음에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을 스케치합니다. 그다음에 금을 인발해서 판지를 늘리고 철사를 뽑아 재료를 준비해요. 이후 가위를 이용해 원하는 크기와 형태로 일일이 자릅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보셨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휘고 꺾고 두드려서 더욱 정확한 모양을 만들고, 그걸 다시 때우고 연결해 티아라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보석을 세팅하고 광을 내는 마무리 작업을 해요. 최종적으로 사무실에서 검품한 뒤에 고객에게 전달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에요. 영국에서 주문이 들어왔던 티아라는 저와 직원들이 석 달간 매달린 끝에 나온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150돈에 달하는 금, 수많은 진

주와 보석이 매달린 티아라는 사진으로만 봐도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압도적인 화려함을 자랑한다.

슬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잘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이 작품(측면의 사진)은 인도 후 고객으로부터 “It's the best!”라는 찬사를 들었다. 평생을 귀금속 세공에 몸담아 왔지만, 박영철 대표가 언제나 순도 높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이같이 완성된 작품이 고객에게 전해질 때이다. “보석을 세공할 때마다 고객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빛나는 순간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담고, 미래를 약속하는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 테니까요. 그 보람이 이 길을 계속 걷도록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수숙련기술자로서 다음 단계인 명장을 꿈꾸는 것과 더불어 그에게는 또 하나의 견고한 꿈이 있다.

“기술을 나눌 수 있는 후진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전통기술을 혼자만 취하는 것은 세공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일이에요. 신라 왕관을 만들었던 장인의 후예로서 우리의 섬세한 세공 기술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요. 후진들과 멋진 디자인과 세공기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핸드메이드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박 대표의 목에는 언제나 루페(Lupe)가 매달려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디테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의 집념이다. 루페를 통해 그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한결같은 성심으로 보석보다 더 귀한 가치를 세공하는 그의 눈빛, 그 안에는 보석세공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②

### 자부심과 긍지

출근길은 언제나 즐거워야 한다. 하는 일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느끼는 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

③

### 이타심과 헌신

돌이켜보면 나 혼자만 잘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다. 모두와 협업하면서 고객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수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⑦

## 공기업 최초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한국수자원공사

### 특화된 블라인드 채용과정

### 도입 배경



외부환경

-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준 높아짐
- 1990년대생의 화두가 된 '공정성'

Good!



내부환경

- 2014년도 공기업 최초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변화의 변곡점에 선 K-water

### 추진 내용 및 과정

<b>공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및 학력 폐지</li> <li>· 전공 및 성별 무관</li> <li>· AI/빅데이터 기반 자소서 블라인드, 표절검사 실시</li> <li>· 대면면접 보완도구로 AI 면접 활용</li> </ul>	<b>투명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기술서와 인재등록시스템 제공</li> <li>· '채용문의 챗봇' 자체 개발 및 운영</li> <li>· 공기업 최초 점수공개 및 이의신청 제도 운용</li> </ul>	<b>능력 중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이고, 명확한 직무 능력 측정을 위한 필기전형 고도화</li> <li>· 면접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일관된 직무역량 측정 결과 도출</li> </ul>

### 성과 및 성공 요인

성과 **정부 지침 35%를 크게 상회하는 53% 지역인재 채용**  
(2019년도 신입사원 90여 개 학교, 다양한 지역 출신 인재 선발)

성공 요인 **CEO의 추진력**  
(CEO 취임 이후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강력 추진)

### 향후 발전 방안

블라인드 채용 지속 혁신을 통한 K-Water만의 채용 브랜드 이미지 구축

- AI 면접 비중 확대 적용
- NCS 및 AI 기반의 자소서 직무적합도 평가

[ K-water의 우수 블라인드 채용 툴을 다른 기관들에 적극적으로 확산 ]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변화

역량 있는 인재의  
조직 유입을 통한  
생산성 확대!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난  
채용!



문준호 과장(4급)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김태형 사원(5급)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Q** ——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뽑은 직원의 조직  
및 업무 적응력을 평가하자면?

**A** —— 출신지, 출신 대학 등 후광 효과를 없애고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수준 이상의 다양한 직무역량을 보유한 직원이 조  
직에 유입되어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블라인  
드 채용을 통해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Q**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대해 평가한다면?

**A** ——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공정  
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스펙과 연줄이 아닌  
직무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속해서 채용  
방식과 비리 여부를 감시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원해요!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Q&A

**Q** —— 서류전형 당락의 형태가 ‘적합자’, ‘부적합자’이면  
부적합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불성실 기재자’, 즉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 기재 등은 불합격입니다.

#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에너지관리기능장 & 배관기능장 취득 수기

이승규 (주)발렉스서비스



##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으로 얻은 성취감

내 나이 31살이 되던 2007년에 지인 추천으로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처음으로 ‘산업용 보일러’를 접했다. 모든 기계가 낯설고 신기하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퇴근 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고 다짐하며 신입사원 OJT 교육을 받는 한 달 동안 컴퓨터 학원을 오가며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은 공업고등학교 전자과 재학 중에 취득한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두 개가 전부였는데, 졸업 후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손에 친 것이다. 신입사원 OJT 교육을 마친 후 자신감을 느끼면서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산업용 보일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여러 난관에 부딪쳤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일의 재미가 생기면서 자격증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샘솟았다. 차근차근 자격증 취득 계획을 세우고 이론을 익히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기초를 다졌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임을 불잡고 가르쳐 달라고 많이도 괴롭혔다. 배우고 싶어서 들이대는 후임을 외면할 수 없는 법. 처음에는 귀찮아하다가도 친절히 설명해주었고 틀린 부분은 바로 잡아주었다. 2007년 기능사 필기

와 실기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신념인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를 되뇌며 ‘보일러취급기능사(現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주경야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성과를 이룰 때마다 오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짜릿했다.

## 내생애 잊히지 않을 자격 취득과정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기억은 2010년 가스산업기사를 취득하면서 현재 관리 중인 20T/H 수관식 보일러의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 선임을 맡게 된 일이다. 산업용 보일러를 처음 만난 지 3년 만에 선임 신고를 했고, 신념을 잊지 않고 ‘기능장’ 취득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에너지관리기능장 응시 자격은 기능사 취득+실무경력 7년이다. 실무경력 7년이 된 해 2014년 56회, 2015년 57회 기능장 필기시험에 응시했지만, 준비가 부족한 탓인지 낙방했다. 이후 2016년 58회 기능장 필기시험은 합격했지만, 5시간이 넘는 작업형 실기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배관작업에서 많은 수험생이 플랜지 용접과 맞대기 용접에서 누수로 실격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실기시험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었으나 다행히 아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2015년 7월 무더운 햇빛이 내리비치는 여름 한 달 동안 쉬는 날마다 청주에서 1시간 30분을 달려서 고물상에 갔고, 쉴 틈 없이 전기용접을 했다. 실기시험일 전까지 전기용접과 배관작업만 100시간가량 매진한 결과 손바닥에는 굳은살이 박이고 체중은 5kg이 줄었다. 서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염까지 생겼다.

드디어 2015년 9월 8일 에너지관리기능장 실기 작업형 시험일.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평소에 연습하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고, 결국 시험 종료 10분을 남겨둔 5시간 20분 만에 완성작품을 제출했다. 감독위원으로부터 수압시험 통과라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이날은 오랜만에 꿈잠을 잤다.

2015년 10월 16일 제58회 기능장 최종합격자 발표일. 살아온 평생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날이다. 2008년 에너지관리기능사를 취득한 후 7년 만에 에너지관리기능장을 취득하게 된 나에게 박수를 보냈다. 나 자신을 믿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계속 도전하였고, 2016년에는 제59회 배관기능장 시험에도 최종합격하는 기쁨과 영광을 얻었다.

### **나에게 날개가 되어준 두 개의 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은 나의 오른쪽 날개, 배관기능장은 나의 왼쪽 날개가 되어주었다. 기능장을 취득 후 한국에너지기능장협회의 정회원으로 대외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선배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국가평생 교육원 학점은행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가정 형편상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에 반가운 정보였다.

학점은행제에서 기능장 자격증은 30점 전공학점으로 인정되고, 4년제 대학에서는 기능장 자격증 두 개로 6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관리기능장과 배관기능장으로 학점인정을 받고, 자퇴했던 전적 대학에서 이수했던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로 6개월 만에 건축설비학 공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만약 기능장 자격증이 없었더라면 시간상으로 2년 넘게 걸리는 일이다). 기능장 자격증은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고 끊임없이 더 배우고 싶은 욕망을 아낌없이 채워주는 내 어깨에 날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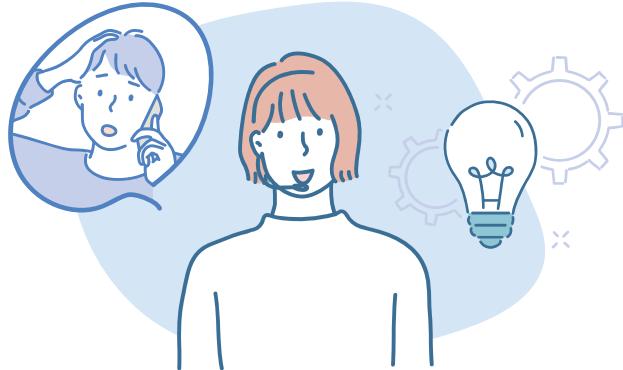
이후 2017년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생산공학과(기계공학전공)에 입학했다. 막상 부딪혀보니 직장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2~3일을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마칠 무렵에는 예전부터 계획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도전했다. 2018년의 마지막 평일 13차 교직훈련과정에 지원 자격 2급 2호에 해당하는 기능장 자격으로 지원했고, 2019년 3월에 자격연수를 수료하여 건축설비설계 시공 2급, 신재생에너지생산 2급, 플랜트 2급, 냉동 공조설비 3급, 소방 3급, 산업안전관리 3급의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과연 내가 31살의 나이에 이직한 후 지금까지 현실에 안주하며 내 주변이 변하기만을 기다렸다면 지금 무엇이 바뀌었을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전문대 중퇴였던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다시 한번 자격증의 시너지 효과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낀다.

## 사람을 다루는 상담에 관한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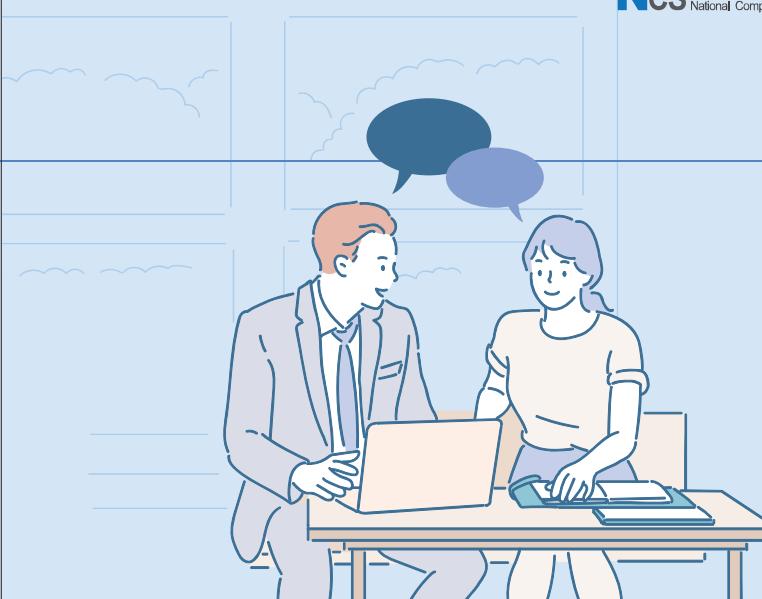
# 소비자전문상담사



### 소비자전문상담사(Consumer Adviser Senior)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권리와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는 높아진다. 소비자전문상담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상담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전문인력으로,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 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소비자조사 등 소비자 복지를 향상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은 2급과 1급이 있다. 1급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	<b>1급 응시자격</b>	<b>검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li> <li>②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li> <li>③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한 사람</li> </ul>	<p>필기 : 객관식 실기 : 필답형</p>
	<b>시험과목</b>	<b>합격기준</b>
	<p>필기 : ① 소비자법과 정책 ② 소비자상담론 ③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p> <p>실기 : 고급소비자 상담 실무</p>	<p>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p>
자격증 관계도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활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또는 기업의 소비자 관련 부서, 고객상담센터, 고객만족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li> </ul>	



## 직업상담사

66

직업상담사는  
구인·구직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조언가’다.

99

### 직업상담사(Vocational Counselor, Senior)

직업 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 상담에 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직업상담사의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용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직업상담사 자격은 2급과 1급이 있다. 1급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검정형 자격 취득 방법	<b>1급 응시자격</b>	<b>검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직업상담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② 직업상담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ul>	<p>필기 : 객관식 실기 : 필답형</p>
	<b>시험과목</b>	<b>합격기준</b>
	<p>필기 : ① 고급직업상담학 ② 고급직업심리학 ③ 고급직업정보론 ④ 노동시장론 ⑤ 노동관계법규</p> <p>실기 : 직업상담실무</p>	<p>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p> <p>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p>
자격증 관계도	직업상담사 2급 ➤ 직업상담사 1급	
활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할 수 있다.</li> </ul>	



## 도심 속 천혜 자연, 울산 동구로 떠나는 여행



동해 따라 일몰까지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울산 동구로 가보자.

산업화가 그려낸 도시의 얼굴과 자연의 색이 조화를 이룬  
장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푸른 동해의 전설, 대왕암공원

울산 동구 관광에서는 대왕암공원을 빼놓을 수 없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울기등대를 거쳐 만나는 노오란 바위섬과 애메랄드빛 바다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대왕암’ 공원이라 불리는 이유는 대왕암에 얹힌 전설 때문이다. 삼국을 통일하고 경주 앞 바다 수중릉에 묻힌 문무왕에 이어 왕비도 그 뜻을 따라 용신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며 이 바위 아래 묻혔다는 전설에 따른 이름이다. 본래 대왕암은 바위섬인데 다리가 놓여 있



어서 대왕암으로 건너갈 수 있다. 바닷바람은 다소 거세지만, 바람에 맞서 섬에 다다르는 매력이 있다.

코스별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다. **바닷가길**(대왕암공원 해안선을 따라 슬도까지 이어지는 길), **전설바위길**(나무데크를 따라 탕건암, 용굴(덩덕구디), 할미바위 등 갖가지 이야기를 품은 길), **송림길**(1만 5천그루의 송림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 **사계절길**(대왕암공원 중앙 통로를 따라 수십 그루의 왕벚나무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길)은 저마다의 특색을 안고 있다. 특히, 바닷가길은 대왕암공원의 탁 트인 동해와 시원한 파도 소리를 벗 삼아 걸을 수 있는 최적의 길이다. 송림길과 사계절길이 가장 기본 코스이지만, 대왕암공원을 처음 방문한 이라면 바닷가길을 통해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걸으며 동해의 푸르름을 온몸으로 느껴보길 추천한다.

📍울산 동구 일산동 산907 | 🚍인근 여행지 추천

성끌마을 | 📍울산 동구 성끌4길 122-3

대왕암공원 둘레길과 슬도 맞은편 방어진향을 잇는 곳으로, 마을 입구에서부터 약 200m 길이의 골목에 정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주민 약 300여 명이 거주하는 소담한 마을이다.

## 울산을 한눈에, 울산대교 전망대

울산대교(蔚山大橋)는 2015년에 개통한 울산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1,800m의 현수교다. 화정산 정상에는 울산대교 전망대가 있는데 울산의 3대 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산업단지 및 대왕암공원, 동해, 가지산, 신불산 등 울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울산대교 전망대 1층에는 홍보관 및 영상실 등이, 2층에는 야외테라스, 3층에는 전망대, 4층에는 옥외전망대가 갖추어져 있다. 매일 19시 50분에 한 차례 진행되는 ‘미디어파사드’도 볼 만하다. 전망대 외벽 전체를 활용하여 울산 동구의 산업과 관광 자원을 영상쇼로 보여준다.

울산대교 전망대에서의 야경은 울산 12경의 하나다. 도시 일몰과 산업 불빛이 어우러져 황홀함을 자아낸다. 울산은 이처럼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울산만의 관광 자원으로 되살려놓은 곳들이 많다. 천혜 자연과 더불어 낮과 밤이 선명한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울산 동구로의 여행이 제격이다.

📍 울산 동구 봉수로 155-1 | Ⓞ 매일 09:00~21:00(둘째, 넷째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코로나 19로 인해 변동 가능](#))



## 파도와 소리의 섬, 슬도

또 하나 독특한 관광 자원으로서 울산 동구에는 지역의 역사성·생태성·역동성을 고려하여 관광 자원화한 ‘소리 9경’이 있다. 보는 관광에서 나아가 듣는 것을 관광 자원으로 만든 것으로, 동축사의 새벽 종소리, 옥류천의 계곡 물소리, 마골산 숲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현대중공업 엔진 소리, 새 배의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 울기등대의 무산 소리, 대왕암공원 몽돌 물 흐르는 소리, 주전해변의 몽돌 파도 소리, 그리고 슬도의 파도 소리를 포함한다.

슬도는 방어진항의 정면에 자리한 바위섬으로, 돌맛조개의 주요 서식지다. 돌맛조개로 인해 섬 전체 바위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이 구멍 사이로 파도가 드나드는 소리가 마치 거문고의 소리를 닮았다고 하여 거문고 슬(瑟)자를 써서 슬도(瑟島)로 불린다. 소리의 섬으로 잘 알려진 슬도는 그 소리만큼 일몰도 아름답다. 온 세상 주황빛으로 물들면 낮 동안 치열했던 울산 공단의 모습이 드러나고, 대조된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슬도를 찾는다.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하나의 그림이 되는 슬도에서 동구 여행을 마무리해도 좋을 것이다.

📍 울산 동구 방어동 산5-3 | 🎧 인근 여행지 추천

**소리체험관** | 📍 울산광역시 동구 성길길 103 소리체험관 | 코로나 19로 인해 변동 가능

1층에서는 울산 동구의 소리 9경을 키오스크와 프로젝션 등 미디어를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고, 2층에서는 슬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 울산 동구

#### • 가볼 만한 전통시장 •

##### 01 —— 대송농수산물시장 |

1991년도에 개설된 동구 유일의 농수산물 시장으로서 싱싱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울산 동구 대송8길 6**

##### 02 —— 동울산종합시장 |

1983년도에 개설된 동구 전통시장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장으로서 올해 공영주차장 및 고객센터가 들어서 고객의 편리함이 증대됐다. ♡**울산 동구 진성14길 77**

##### 03 —— 월봉시장 |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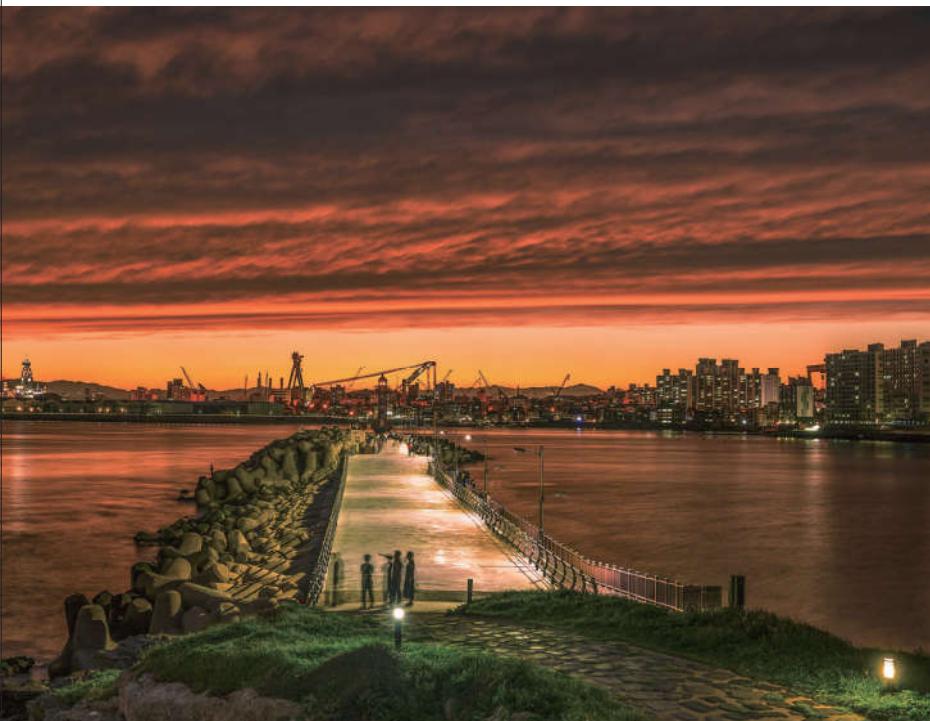
도에 개설된 중형 시장으로서 2018년에 시설 현대화 작업을 마쳤다. 신선한 식료품부터 즉석 두부, 잡화 등을 부담 없는 값에 구매할 수 있다. ♡**울산 동구 화정6길 5**

##### 04 —— 전하시장 | 1978년도

에 개설된 시장으로서 농수산물 및 잡화를 취급한다. 대표 먹거리는 전통떡과 전통돼지국밥, 전어회무침, 가마솥닭강정 등이다. 가까운 곳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해 대기업 공장들이 있어 시장 규모보다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울산 동구 녹수2길 10**

##### 05 —— 남목전통시장 | 2015년도에 남목시장, 동부시장, 남목시티시장을 통합하여 남목전통시장으로 거듭났다.

주요 취급 품목은 농수산물·축산물과 잡화 등이다. 인근에 일산海水욕장과 대왕암공원 등 동구 주요 관광지가 밀접해 있다. ♡**울산 동구 남목17길 9**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화 예술계 산업군과 관련 종사자를 위한 고용보험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과 고용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고용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관련 정보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안전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 : 고용보험 당연가입, 서면계약 체결,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보험료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 가입대상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및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등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 제한대상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예 : 계약건별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단,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자) 경우는 제외]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1/2 균등 부담한다.

소득 산정이 가능한 경우	소득(월평균 소득)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보수 이하 저소득인 경우
소득(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현 1.6%)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산정

※기준보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예술인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TV**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부(052-714-8295)로 문의

정부는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1인 예술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고용보험료의 30~90%	고용보험료의 30~50%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

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하고, 수급제한 사유가 없으며 예술인 최소 종사기간(24개월 중 3개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간	24개월 중 9개월 이상(단기예술인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간주)
수급제한 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 귀책사유 해고 등(단, 소득변동이 큰 예술인의 특성상 귀책사유 없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 × 60% × 지급기간**

※상한액(66,000원 또는 별도 고시)과 하한액(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의 60%)을 적용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문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의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사람 대 사람 간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교육, 집단활동 등이 비대면으로 교체되고, 대규모 입사시험도 무기한 연기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시험도 그 운영에 변화를 겪었다. 올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빈틈없는 전문자격시험 운영에 힘쓴 전문자격운영부. 서로를 위한 ‘복권’을 만들며, 모두가 힘써 달려온 시간을 촘촘히 메운 현장을 전한다.

## 전문자격운영부가 내겐 최고의 복권이야!

### 전문자격운영부 팀복권 만들기 도전

전문자격운영부에 주어진  
오늘의 HRD 미션은?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 MISSION 미션 수행 방법

- 첫째** 팀원들과 함께 약 15분가량 그간 힘들었던 순간과 보람을 느낀 순간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 둘째** 감사와 격려, 위로와 응원, 칭찬과 인정의 메시지가 적힌 총 30장의 카드 중 세 장의 카드를 뽑는다.
- 셋째** 대화를 바탕으로, 카드를 전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메시지와 상품을 기재한 후 복권 스티커를 붙이면 완성!

#### PURPOSE 미션에 따른 HRD 효과

- 첫째**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
- 둘째** 팀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



전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다.

약 15분가량의 대화로 시작된 이번 미션에서 대화의 물꼬를 튼 강유정 대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자격시험을 이끄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고 전했다. 모두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은 김창현 과장은 꽤 오래전 일이지만, 전문자격시험 관련 잊하지 않는 실수담이 기억난다며 그때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손혜수 과장은 올해 지사에서 본부로 발령받아 일하면서 달라진 업무 환경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송순영 차장의 경우, 올해 안팎으로 바쁜 한 해임에도 팀원들의 도움이 있어서 해낼 수 있었다며,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구동성 전문자격운영부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민원 해결이라는 이들. 신웅철 과장은 감정적으로 꽤 소모적인 하루를 보낸 날에는 집에 가서도 그런 감정들이 쉬이 가시지 않는다며 팀원 모두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이겨내는 전문자격운영부의 일관된 태도는 ‘공감’이다. “왜 무슨 일이야?” 하고 서로 발벗고 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들. 혼자서 그 일을 감내해야 한다고 느꼈을 때와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고 공감해주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치는 한 뼘 더 커지는 법이다.

## 공감!

### 혼자가 아닌 우리의 일

전문자격운영부는 전문자격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총괄,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다. 한 해 한 차례 시행되는 자격시험인 만큼 수많은 문의 전화와 이의신청 등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총체적인 과제들이 집결하는 곳이다.

오늘 팀 미션을 위해 회의실에 모인 인원은 오창열부장을 비롯한 총 8명. 송순영 차장, 신웅철 과장, 김창현 과장, 손혜수 과장, 정수임 과장, 석민지 대리, 강유정 대리다. 등장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이들에게 전해진 미션은 ‘복권’ 만들기. 알록달록 흘러진 카드를 두고 조금은 설레는 표정들! 이번 미션의 목적은 감정을 터놓고 복권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 지지!!

## 가장 큰 힘은 리더의 말 한 마디

대화가 종료된 후 알록달록 한 데 뒤섞인 카드를 하나씩 선택한 후, 모두가 정성스레 글귀를 써 내려간다. 쓱싹쓱싹 굽어낼 행운의 복권이기에 상품으로 모닝커피와 치킨, 팥죽까지 채워 넣는다. 살짝 엿보니 손혜수 과장은 장난스레 메시지만 적힌 ‘꽝’ 복권도 만들어내는 중이다.

두근두근 누가 누구에게 행운의 복권을 건넬 것인가. 신웅철 과장은 ‘웃어봐! 잘 될 거야’를 건네며 요즘 실천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가치관은 ‘Always smile!’이라며 함께 웃자고 모두를 다독였다. 이어 옆자리 강유정 대리는 석민지 대리에게 ‘난 안 되는 데 넌 되네?’ 메시지를 건네며 꼼꼼한 일 처리를 칭찬하고, 다시 석민지 대리는 정수임 과장에게 ‘언제 나 네가 최고야!’를 건넸다. 그 순간, ‘역시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 하며 전문자격운영부에 오래 근속한 정수임 과장에게 박수가 쏟아지고, 정수임 과장은 한껏 들뜬 기분으로 신웅철 과장에게는 ‘맛있게 먹고 힘내!’를, 송순영

차장에게는 ‘어쩜 이렇게 잘하지?’를 전하며 존경을 표했다. 이어 송순영 차장은 손혜수 과장과 오창열 부장에게 복권을 건넸다. 손혜수 과장 역시 오창열 부장에게 복권을 건네면서 오창열 부장은 노오란 복권 두장을 획득했다.

복권에 쓰인 메시지는 ‘잠시 쉬어도 괜찮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자!’. 쉼 없이 달려온 리더에게 모두가 존경과 휴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란다. 어쩌다 보니 두 개의 옐로(?) 카드를 받은 오창열 부장을 보며 모두 함박웃음이 터진 가운데, 복권의 상품으로는 팥죽이 쓰여 있었다. 오창열 부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팥죽이란다. 서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리는 근사한 팀 워크다.

부장이 답장으로 건넨 복권은 미션을 위해 모인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누구를 특정하지 않은 팀원 모두를 위해 뽑은 세 장의 카드는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었다. “처음이라 서툴어도 너도 할 수 있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너의 존재감은 최고!”

오창열 부장은 개개인이 존재 가치가 있고, 전문자격운영부의 재산이라며 팀원들의 사기를 한껏 북돋웠다. 모두의 마음이 담긴 카드는 이내 하나의 아름드리나무로 완성되었다. 짧고 굵직하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시간, 모두들 행운의 복권을 안고서 다시 힘차게 전문자격운영부를 이끌어가길 바란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신웅철 과장, 정수임 과장, 손혜수 과장, 오창열 부장, 송순영 차장, 강유정 대리, 석민지 대리, 김창현 과장

MINI  
INTERVIEW

## 전문자격운영부 오창열 부장 인터뷰

## 전문자격운영부를 소개합니다!

**Q** —————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A** ————— 국가기술자격은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서비스분야 자격이지만, 전문자격은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는 면허의 기능을 가진 자격입니다(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Q** ————— 전문자격국 내에서 전문자격운영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 연간 국가전문자격 종합 시행계획 수립, 관련 부처에 자격시행 관련 제도개선 및 보완 요청, 시행 관련 총괄 관리 및 지원, 자격별 최종합격자 발표, 전문자격국 경영계획 및 전략 수립, 국 정원관리 및 인사, 예산 확보 업무를 합니다.

**Q** ————— 전문자격운영부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A** ————— 전문자격운영부 직원들은 매우 밝고 활동적입니다. 자격별 관련 부처 및 소속기관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한 안정적 시행 유도 능력(제도개선사항 도출, 시행 방법 표준화, 예산 활용 등)이 뛰어나야 합니다.

**Q** —————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문자격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을 듯합니다.

**A** —————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관련 부처와 시험 연기를 사전에 검토하여 결정했습니다. 공단 최초로 관련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기관 중 최초로 시험장 입실 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적용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사전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수험자 중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험장에서 단 한 건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Q** ————— 전문자격 운영 관련하여 어떤 점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전문자격의 특성상 자격시험 시행 이외는 공단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할(제도개선, 응시수수료 결정 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시험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산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CBT 시험 도입, 비대면 AI 면접시험 도입, 전문자격국만의 예산 운용 자율성 확보, 출제발간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함께



**김태균 부장**

83년생의 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글의 깊이는 젊은이들을 대변한다기보다 오히려 더 이전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쉽게 읽히는 시가 있는 반면에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꽤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시집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지만 독서 모임을 통해 기존에 잘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몰입해서 읽을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북서부지사  
독서모임 **북피플(Book People)** 이  
전하는 시를 통해 얻는 기쁨

**김동민 주임**

박준의 시는 대개 마지막 문구일 것 같은 표현을 첫 부분에 써놓아서 그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게 하는 시들이 많았다. ‘84p’나 ‘이름으로 가득한’ 등의 시는 서두에 ‘~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써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송길용 지사장**

소설과 다른 시집의 장점은 호흡이 짧다는 점이다. 소설은 그 캐릭터와 주변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시 읽을 때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집은 다르다. 호흡이 비교적 짧은 글들의 모음이므로, 기분에 따라 혹은 날씨에 따라 순서를 편집하여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순서의 재배치가 자유로운 만큼 같은 글이라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집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 권기승 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시는 ‘단비’이다. 다른 시들에 비해 그림이 잘 그려지는 시라 그런지 개인적인 경험과 결부되어 떠올랐다. 시골에 가면 항상 대문 앞을 지키는 강아지 한 마리씩은 있을 것이다. 그 강아지들에게 새끼를 가지는 일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새끼들을 한 집에서 모두 키우기엔 벼겁기에 태어난 후 곳곳의 동네로 보내진다. 그럴 때면 나는 항상 엄마 강아지를 유심히 보곤 한다. 사람처럼 감정을 티 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시의 단비처럼 쉬지 않고 뛰어다니거나 유난한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단비 한 마리씩은 품고 사는 것은 아닐지.

### 서혜진 대리

학부 시절이나 학창 시절, 시험을 위해 읽었던 시 이외에 시집을 사서 시를 읽은 지는 아주 오래된 것 같다. 읽는 내내 몇 작품은 이해하기 어려워 넘어가기도 하고 몇 작품은 마음에 들어 한동안 보고 있었다. 시의 매력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듈다. 소설이나 에세이처럼 연속성이 없으면서 꾸준히 전해지는 감성 등이 있는 것이 말이다. 시를 보면 최근 들어 더욱 길어진 나의 말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나는 너무 많은 정보와 생각을 흡수해 길게 나누고 있지 않은가. 좀 더 함축적인 말들로 핵심을 주고받는 데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장현숙 대리

개인적으로 ‘연년생’이라는 시가 좋았다. 아랫집 아주머니는 자주 아픈 분이었나 보다. ‘병원으로 실려 갈 때마다’라고 묘사한 것을 보니 말이다. 그런 아주머니가 실려 갈 때마다 어린 두 아이는 엄마를 부르며 걱정 가득한 밤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좀 달랐던 모양이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더욱 아파진 것인지 혹은 아예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지, 형이 엄마를 부르고, 동생이 형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이 시는 많은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다. 엄마가 없어짐을 직감적으로 안 동생이 형을 부른 것인지, 아니면 그 형을 위로하고 싶은지 말이다.



###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저, 문학과 지성사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와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을 펴낸 시인 박준이 2012년 첫 시집 이후 6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시집이다. 1부 <내가 아직 세상을 좋아하는 데에는>, 2부 <눈빛도 제법 멀리 두고>, 3부 <한 이틀 후에 오는 반가운 것들>, 4부 <그 말들은 서로의 머리를 털어줄 것입니다>로 구성돼 있다. 화자인 ‘나’는 과거에 당신과 나누었던 ‘말’을 되짚는다. 그리고 그 말을 함께 나누었던 ‘당신’을 여전히 기다린다.

# 청렴의 — 원플러스원 —

김은희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허구와 가짜가 권력이 되는 세상인 것 같은 분위기는 무엇일까. 청렴이 국가를 바로 세운다고 교육받은 사람들, 반면에 가상의 여론은 현실의 여론을 지배하게 되니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이들이 ‘공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30여 년 전에 관람했던 미래예측 영화가 생각이 난다. 지구인 대부분 핸드폰 한 대 이상을 소유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그 기계에 얹매여 살아가리라 예측한 영화였다. 그 당시 약간의 충격과 ‘이건 영화니까’라며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위로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 설마가 현실이 됐다. 대다수가 핸드폰의 최적화된 사용법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데, 기계에 적응도 하기 전, 무수한 알고리즘과 정보로 인해 무인도로 떠밀리고 있다. 그냥 떠밀리기만 해도 괜찮다. 떠밀리면서 정보가 수집되어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에 기록되고 있으니 어찌 괜찮을까 말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청렴의 가치와 정직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전개하고 데이터화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지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급하다. 어찌 됐든 국민들은 모두가 나약해진 마음과 너털거리는 심장으로, 분노와 질타로 합체되고 있다. 나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떳떳한 부모, 자식, 스승, 제자가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책상 위 노트북을 통해 날아온 데이터로 보고 받고 클릭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물에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집단은 어디일까? 국민과 대중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예민하고 정직한 대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국민의 행복을 정직 데이터로 매뉴얼한 알고리즘은 어디에 주문(?)하면 될까? 청렴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1+1 하면 전 세계적인 구독은 일어날까? 전 세계 20억 SNS 폐\*\*\* 가입자들의 손끝에 행복의 가치 IP주소를 Ctrl+C 할 수 있을까? 초등 1·2학년 수학을 AI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청렴 의식을 함께 탑재할 수 있을까?

미래는 과거와 같지 않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고 했던 마크 앤드루스의 말처럼 기술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식과 운동성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AI의 꼼수를 읽은 이세돌의 신의 한 수, 78수는 인공지능도 버그가 나게 한다는 걸 우린 경험했다. 이세돌처럼 알파고의 꼼수를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AI의 변형된 데이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세상을 바꿔온 것은 상식이 아니다. 사회의 가상화로 인해 이제는 구호 대신 가상공간인 소셜미디어 안에서 엔터키를 누른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당선된 첫 미디어 대통령이 나온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청렴도 행복도 국민의 삶 권리도 미디어 안에서 ‘좋아요’를 받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받아들이는 건 아이러니일까.

우리는 불안하다. AI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몇만 분의 1초가 채 되기 전에 이미 모든 일상 속에, 소지품에, 심장에, 머리에, 손가락 끝에 Ctrl+C 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면 이내 Ctrl+X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아날로그 매뉴얼을 섭끼고 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본인의 할 뜻을 다한다. 세 번째, 함께 협력한다. 네 번째, 욕심을 버린다. 다섯 번째, 진실하게 정직하자. 여섯 번째, 공공의 배려를 한다. 이 여섯 가지의 덕목을 지키면 청렴한 인간이 된다고 한다. 청탁의 유혹을 이겨내면 청렴할 수 있다고 나지막이 교육한다. AI는 부정부패 비리 인물을 데이터화하고, 안면인식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고 범죄 유발 가능자 은신처 부근에 경찰차를 출동시키고, 무단횡단한 시민을 전광판에 게시하고, 예측 가능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데 말이다.

**청렴에 대한 알고리즘을 정의하자.**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 된다는 말을 AI가**  
**답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보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청렴의 가치를**  
**인공지능도 합의하는 그런 날을 그려보자.**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 정직한 현실 공간의**  
**알고리즘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자.**  
**상상만으로도 신나고 건강한 승리다!**

# HRD NEWS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협약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

공단은 9월 24일, 본부 회의실에서 3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 합의서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대회 개최

공단은 9월 18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0년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업 내 자격검정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그에 드는 자격검정개발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사업 내 자격검정을 운영하는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했다.



## 2020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공단은 9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2020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총 169편의 작품을 접수해 2차에 걸친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1편), 금상(2편), 은상(3편), 동상(6편) 등 총 1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단은 입상작 12편을 단행본으로 엮어 배포할 계획이다. 국가자격 취득 수기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www.Q-Net.or.kr](http://www.Q-Net.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9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0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39개의 기업이 참가한 지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대·중견기업 6곳, 중소기업 6곳이 전국대회에 참가했고, 이 중에서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부문별로 각각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 장려상 3팀이 최종 수상하여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2020년

####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헌혈 감소로 혈액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헌혈의 집을 지원하고자 9월 23일 본부 로비에서 헌혈활동을 했다. 본부 내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 7개월 만에, 해외취업 연수생 실은

#### 베트남행 비행기 뜯다

공단은 9월 23일부터 10월까지 총 3차에 걸쳐 K-Move 스쿨 연수생 및 연수기관 담당자 141명의 베트남 특별입국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입국은 공단(해외취업 연수부, 베트남 EPS센터)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하노이 중소기업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성사한 것으로, 중소기업연합회의 ‘기업인을 위한 특별입국’에 K-Move스쿨 연수생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총 3차에 걸쳐 하노이로 입국하며, 도착 즉시 2주간의 격리기간을 거친 후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 ‘HRDK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단은 9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HRDK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분야는 비대면 활성화, 국민 신뢰 제고, 지역 상생, 적극행정 등 4가지다. 수상작(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5점)은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제출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etter box

## 김 건 완

〈HRD 현장사용법〉에서 디지털 컬쳐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워드 코로나’의 최고의 삶의 방식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 영 지

〈취업의 직방〉 코너에서 신중년 취업정책을 보고 고용안정지원과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이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의 해외취업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 박 은 정

언제나 〈HRD 뉴스〉를 먼저 읽고 있습니다. 그중 공단의 미래전략추진단 출범은 노동시장 변화에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 차 수 정

내부직원을 상대로 HRD전문위원을 56명 선발하여 공단의 능력개발 사업 전반의 심사, 평가, 기업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니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네요.

## 우 제 문

‘진일보한 소방 안전 기술로 소중한 인명을 지키다’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이뤄낸 결실임을 알기에 그 성과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 또한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그 초석을 쌓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 김 민

저는 고3이에요. 입시 준비도 하지만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질지 고민도 많은데 도서관에서 HRD Korea를 보면서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알 수 있어서 대학가서도 자주 읽으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진로와 직업 그리고 자격 정보도 많이 실어 주세요.

HRD Korea

vol. 292



QR코드를 인식해  
이번호 의견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당첨자

김건완 50\*\*      최영지 83\*\*  
박은정 39\*\*      차수정 86\*\*  
우제문 90\*\*      김 민 42\*\*

이번 HRD Korea 어떠셨나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단 QR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엽서, 이메일

(kyj626200@hrdkorea.or.kr/  
이름, 연락처 기재)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안내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안내됩니다.



2020 전기안전 콘텐츠 공모전 광고부문 대상 수상작



## 연결보다 청결이 우선입니다

콘센트와 멀티탭에 쌓여있는 먼지를 방지하면  
먼지를 통해 전류가 흘러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수시로 청소해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KESCO** 한국전기안전공사

# 코로나19 고용위기 일학습병행 특별조치로

함께 극복해요!

## 일학습병행이란?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6월 15일부터 일학습병행 특별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일학습병행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훈련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 1. 학습근로자 참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입직 1년 이내
- 상시근로자 수의 25%까지

#### 확대

- 입직 2년 이내
- 상시근로자 수의 40%까지  
(재직, 재학 과정 동시 실시 시 50%까지 참여 가능)

적용대상 **‘20.6.15.부터 ’20.12.31.까지 훈련을 시작한 모든 과정(재학단계 포함)**

### 2. 훈련과정 개발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현재 2개 직무까지 지원

#### 확대

**최대 4개** 직무까지 지원  
(기존 2개 직무에 추가로 2개 직무 지원)

적용대상 **‘20.6.15.부터 ’20.12.31.까지 신규로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시작한 모든 과정(재학단계 포함)**

### 3. 훈련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도제학교의 경우 월 30만원)

#### 확대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한 성과금(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전체 훈련기간(월)×20만원')은 별도 지원(도제학교 제외)

※ 1,0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훈련지원금, 외부평가 합격 성과금 미지원

적용대상 **‘20.6.15.부터 ’21.6.30.까지 훈련 종인 모든 과정(재학단계 포함)**

### 4. 훈련지원금과 타 사업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현행	변경
일학습병행	타 사업지원금	중복수급 가능여부	중복수급 가능여부
훈련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가능 <sup>1)</sup>	가능 <sup>2)</sup>
	일자리 안정자금	가능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불가	가능
	타부처, 지자체 인건비성 지원금	불가	가능 <sup>3)</sup>

1) (현행) 훈련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기간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2) (확대) 훈련기간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유직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수급 가능

3) 타 부처, 지자체의 해당 사업에서 중복수급을 금지한 경우는 제외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적용대상 **‘20.6.15.부터 훈련 종인 모든 과정의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가 지원요건 해당 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NAVER**

일학습병행 블로그



를 검색해보세요

2020년 8월 28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됩니다.

결취선  
①

보내는 사람

이 름 \_\_\_\_\_

주 소 \_\_\_\_\_

전 화 \_\_\_\_\_

--	--	--	--	--

우 편 엽 서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업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결취선 ②

**HRD Korea**

울산광역시 종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	---	---	---	---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ar****10**

2020년 10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추석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 기사 제3회 실기시험 (10.10~10.25) • 제19회 청소년상담사 1차 시험 (10.10~10.16)
11	12	13	14	15	1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회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제10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2차, 제17회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원서접수(10.12~10.16)</li> <li>•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10.12~10.16)</li> </ul>					• 제122회 기술사 면접시험 (10.17~10.27) • 제57회 변리사 2차 시험 (10.17~10.18)
18	19	20	21	22	23	24
						• 제38회 문화재수리기술자 2차 원서접수(10.19~10.23)
25	26	27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 2차 추가 원서접수(10.29~10.30)</li> <li>• 제6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추가 원서접수(10.29~10.30)</li> </ul>		• 제31회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 (10.31)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http://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질文化遗产 ①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이번 호 **HRDKorea**에 등장했던 인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일자리 관련 슬로건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예시)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질文化遗产 ②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